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목 차

■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부문별 한중 경제관계 변화	2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경 제 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 개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25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은 경제적으로 수출입, 투자, 관광 등 부문에서 교류가 지속 강화되었다. 2008년에 양국 관계가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드문제 등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한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중 수교이후 25년 동안 양국 간의 경제교류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부문별 한중 경제관계 변화

① **상품무역**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對중국 교역의존도가 일방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對중국 교역의존도는 수교 당시인 1992년에는 4.0%에서 2000년에는 9.4%로 확대되다가 2005년에는 18.4%로 급증, 2017년 상반기에는 22.0%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對중국 부품 수출의존도는 2000년 19.7%에서 2005년 40.0%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에는 40.9%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중국의 對한국 교역의존도는 2000년 이후 줄곧 7% 내외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② **기술무역** : 2000년대 이후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가 1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1.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6.3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동기간 약 1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국가와의 기술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과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2015년 현재 3.74배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직접투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중 상호간 직접투자 규모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의 對한국 문화·오락,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992~1999년 누적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투자비중은 19.1%(49.2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중국비중은 0.1%(0.4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2009~2016년 누적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34.1%(216.4억 달러)에 달해 중국 제조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동산·임대 서비스의 FDI 중 중국비중은 15.0%로 대폭 상승, 문화·오락(17.1%), 금융·보험(8.0%) 부문에서의 중국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④ **산업** :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중국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국 간 수출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8대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5년 0.02에서 2016년 0.18로 수출경쟁력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동기간 -0.19에서 0.12로 2000년대 중반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보다 다소 뒤처지는 양상이다. 다만, 중국이 산업재편,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R&D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한중 양국 간 수출 경합이 심화되는 등 산업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⑤ 인적교류 : 수교 이후 한중 간 인적교류는 2016년까지 급증했으나, 사드문제로 올해 들어 급감하였다. 1992년 수교 당시 방한 중국인 수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46.8%로 방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 간 교류 경색국면이 심화되면서 방한 중국인수가 2017년 1~6월 누적 22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4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호혜성, 문화적 동질성이 작용하면서 교역, 투자, 관광 등 부문에서 상호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관계 변화 >

구분		1992년	2016년
외교		선린우호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2008년부터 양국 관계 격상
경제교류	수출	韓→中	전체 수출의 3.5%(6위)
		中→韓	전체 수출의 25.1%(1위)
	수입	中→韓	전체 수출의 3.1%(5위, '93년 기준)
		韓→中	전체 수입의 4.5%(4위)
	투자	韓→中	전체 수입의 4.6%(5위)
		中→韓	전체 수입의 5.2%(5위, '93년 기준)
	관광	韓→中	전체 해외투자의 10%(3위)
		中→韓	-
관광	韓→中	전체 해외투자의 9.4%(2위)	
	中→韓	전체 해외투자의 0.9%(10위)	
관광	韓→中	전체 방중외국인의 1.1%('95년, 5위)	
	中→韓	전체 방한외국인의 3.4%(4위)	
관광	韓→中	전체 방중외국인의 1.1%('95년, 5위)	
	中→韓	전체 방한외국인의 46.8%(1위)	

(시사점)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경색되고 있으나,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對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으로 산업표준을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한·중 수교이후 25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은 경제적 관계가 빠르게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드문제 등 문제로 경제적 경색 양상도 나타남
 - 양국은 지난 25년간 경제적으로 수출입, 투자, 관광 등 부문에서 교류가 지속 강화되었음
 -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또한,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아시아 역내에서 긴밀한 공급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임
 - 특히, 관광 측면에서는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급증하는 등 여행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양국 관계가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드문제 등 이해관계 충돌로 한중 관계가 다소 냉각됨
- 본 보고서는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중 수교이후 25년 동안 양국 간의 경제부문별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 변화 >

구분	양국 관계	의미
수교초기 (1992~1997)	- 선린우호 관계 및 상호보완적 관계	- 신뢰, 평등, 호혜원칙의 외교관계 수립 - 경제통상, 문화교류 시작
발전단계 (1998~2007)	- 협력적 동반자 관계 및 -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 지속가능한 공동운명체 건설 - 경제(투자, 교역)협력 강화
공고화단계 (2008~2012)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경제협력뿐 아니라 안보, 외교, 정치, 문화 등 방면에서 협력파트너십 구축
도약단계 (2013~현재)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	- 경제의 질적 발전 도모 - 정치 및 외교적 소통 강화 - 2017년은 한국 문재인 新정부와 중국 시진핑 2가 맞물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단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부문별 한중 경제관계 변화

① 상품무역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부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對중국 교역의존도가 일방적으로 빠르게 상승함

-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교역의존도가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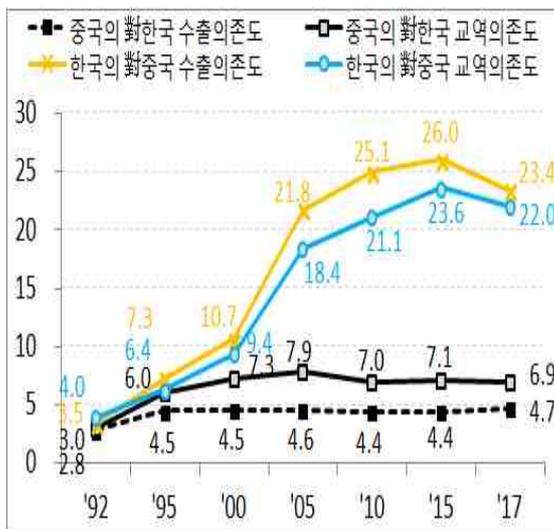
- 한국의 對중국 교역의존도는 수교 당시인 1992년에는 4.0%에서 2000년에는 9.4%로 커지다가 2005년에는 18.4%로 급증, 2017년 상반기에는 22.0%을 기록
- 반면, 중국의 對한국 교역의존도는 1992년 3.0%에서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줄곧 7% 내외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對중국 부품 수출의존도가 급하게 높아짐

- 우리나라의 對중국 부품 수출의존도는 2000년 19.7%에서 2005년 40.0%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에는 40.9%까지 확대됨
- 이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 거점으로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부품 제조기지로 활용됐기 때문임
- 한편, 반제품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 65.2%에서 2005년 42.0%로 빠르게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33.1%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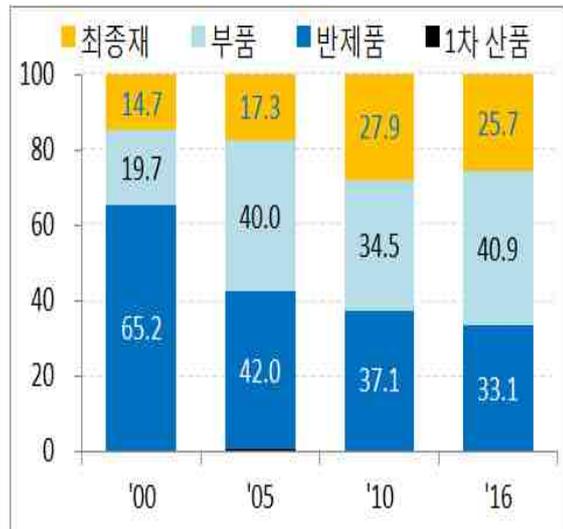
< 한중 상호간 교역의존도 >

(비중,%)



< 한국의 對중국 생산공정별 수출의존도 >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 (17년은 상반기 누적기준임).
 자료 :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우리나라 품목별 대세계 수출액 대비 비중임

② 기술무역

○ 2000년대 이후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가 1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으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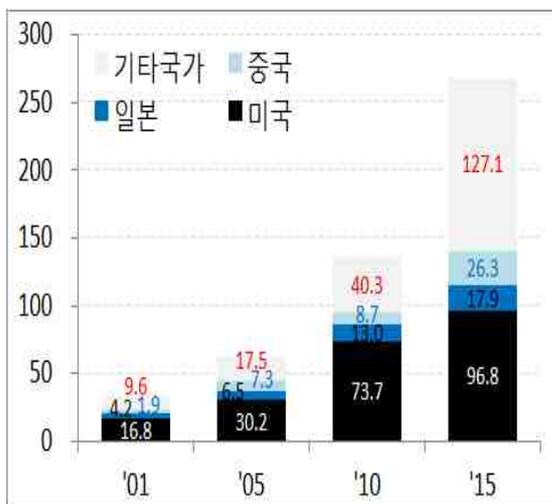
- 중국은 한국의 제2대 기술무역 대상국으로, 한중 상호간 기술무역 규모는 2000년대 이후 15년간 약 13배 증가

-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1.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6.3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동기간 약 13배 이상 증가
- 특히, 2011년 이후로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는 한일 간의 교역규모를 넘어서면서, 중국은 한국의 제2대 기술무역 대상국으로 부상

-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임

- 우리나라는 전체 기술무역 수지비가 2001년 0.23배에서 2015년 0.63배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술무역 적자국가임
- 특히, 미국, 일본 등 국가와의 기술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임
- 반면, 중국과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2005년 44.93배를 기록한 뒤 하락추세이기는 하지만, 2015년 현재 3.74배를 기록하는 등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남

< 한중 상호간 기술무역 추이 > (억 달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주 : 對중국 기술무역데이터는 2001년부터 존재.

< 한국의 對주요국 기술무역 수지비 > (배)

구분	01년	05년	10년	15년
전체 국가	0.23	0.36	0.33	0.63
중국	29.54	44.93	11.26	3.74
미국	0.13	0.10	0.25	0.21
일본	0.08	0.11	0.04	0.87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주 : 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1 이상이면 흑자를 의미함.

③ 직접투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중 상호간 직접투자 규모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의 對한국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투자가 빠르게 증가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금액은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금액보다 10배 정도 많게 나타나는 등, 한중 간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심각함
 - 1992~1999년 누적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투자비중은 19.1%(49.2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중국비중은 0.1%(0.4억 달러)에 그침
 - 2009~2016년 누적기준으로,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2.4%(283.6억 달러)로 대폭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로 오는 FDI 중 중국비중은 4.0%(31.7억 달러)로 소폭 확대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된 반면,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부동산, 문화,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그 양상이 점차 심화됨
 - 2009~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34.1%(216.4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국 제조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동산·임대 서비스의 FDI 중 중국비중은 15.0%로 대폭 상승, 문화·오락(17.1%), 금융·보험(8.0%)의 비중도 크게 늘어남

< 한국의 對중국 산업별 직접투자 비중 > (비중,%)

구 분	92-99	00-08	09-16
전체 (억 달러)	19.1 (49.2)	24.7 (230.9)	12.4 (283.6)
농축수산·광업	17.9	18.1	3.0
제조업 (억 달러)	28.1 (38.5)	46.5 (179.0)	34.1 (216.4)
서비스업 (억 달러)	8.5 (8.6)	10.5 (43.6)	6.2 (64.2)
유통	2.3	8.1	8.6
금융·보험	20.1	24.4	6.6
부동산·임대	17.4	8.3	3.8
전문과학기술	7.3	3.3	6.6
건설	34.0	18.6	2.4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우리나라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금액 중에서의 중국 비중임(기간별 누적기준).

<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직접투자 비중 > (비중,%)

구 분	92-99	00-08	09-16
전체 (억 달러)	0.1 (0.4)	2.7 (18.4)	4.0 (31.7)
농축수산·광업	0.0	7.0	21.9
제조업 (억 달러)	0.0 (0.1)	5.4 (14.5)	1.4 (4.1)
화공	0.0	14.8	0.5
기계·장비	0.0	0.0	8.3
서비스업 (억 달러)	0.3 (0.3)	1.0 (3.8)	5.7 (27.2)
유통	0.5	3.4	3.7
음식·숙박	0.5	2.7	6.6
금융·보험	0.0	0.0	8.0
부동산·임대	0.1	0.0	15.0
문화·오락	0.0	0.4	17.1
전기가스수도건설	0.1	0.3	0.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중에서의 중국 비중임(기간별 누적기준).

④ 산업

○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최근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국의 정책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

- 중국은 2015년 대외적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는 등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혁명의 기초적 마스터플랜 구축을 실현
 -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30년간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
 - 특히, 차세대 IT,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중점분야¹⁾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틀을 마련
-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하는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 노력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임
 - IMD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15년까지 중국보다 다소 우위를 보여 왔으나, 2016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함
 - 기술경쟁력도 중국은 1997년 45위에서 2017년 4위로 도약하며 최근 한국을 크게 앞서는 양상을 보임

< 한중 과학인프라 순위 >



< 한중 기술인프라 순위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주 : 과학 경쟁력 지표는 총 23개 지표(정량 17개, 설문 6개), 기술경쟁력 지표 역시 총 23개 지표(정량 13개, 설문 10개)를 기준으로 산정.

1) 10대 중점 프로젝트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디지털 선반·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교통,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농기계, 신재료,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중국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R&D 능력 향상에 따라 양국 간 수출경쟁이 점차 심화

-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²⁾가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
 - 8대 산업에 대해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5년 0.02에서 2016년 0.18로 수출경쟁력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동기간 -0.19에서 0.12로 2000년대 중반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는 등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
- 다만, 중국이 산업재편,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R&D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한중 양국 간 수출 경합이 심화되는 등 산업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산업별로 한중간 수출경합도³⁾를 살펴보면, 1995~2015년 사이 기계 산업을 제외하고 IT 등 7대 부문에서 한중간 수출 경쟁이 심화됨
 -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기기 등 산업 분야는 양국 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중 8대 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 한중 8대 산업의 수출경합도 >

구분	'95	'00	'05	'10	'15
석유화학	0.17	0.30	0.39	0.68	0.72
철강	0.41	0.34	0.42	0.78	0.56
철강제품	0.49	0.59	0.61	0.59	0.69
기계	0.63	0.74	0.67	0.51	0.58
IT	0.40	0.50	0.60	0.65	0.59
자동차	0.19	0.17	0.32	0.46	0.46
조선	0.69	0.94	0.90	0.86	0.79
정밀기기	0.56	0.61	0.66	0.71	0.74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8대 산업은 석유화학(HS 27), 철강(HS 72), 철강제품(HS 73), 기계(HS 84), IT(HS 85), 자동차(HS 87), 조선(HS 89), 정밀기기(HS 90)를 말함.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란 국가별, 국가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 정도에 대해 분석하는 기법으로 무역특화지수의 부호가 양(+)이면 그 산업은 수출특화를, 음(-)이면 수입 특화를 의미함.

3)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란 국가간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출경합도지수가 1이면 국가 간 수출구조가 완전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함.

⑤ 인적교류

○ 수교 이후 한중 간 인적교류는 2016년까지 급증했으나, 사드문제로 올해 들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후 방한 중국인 수가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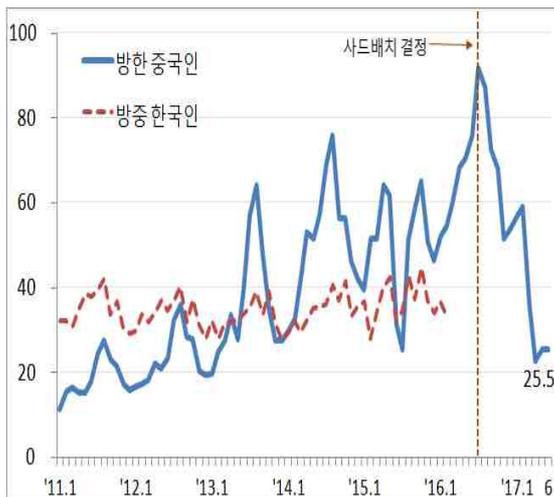
- 1992년 수교 당시 방한 중국인 수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46.8%로 방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하지만,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간 경제적 경색국면이 심화되면서 방한 중국인수가 2017년 1~6월 누적 225만 명으로 지난해 1~6월 누적 대비 약 41% 감소

- 이에 따라, 올해 중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 우리의 여행수지는 2000년 들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다소 적자폭이 감소한 바 있음
- 이는 2011년부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여행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효과였으나, 올해는 사드문제 여파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상호 관광객수 >

(백만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주 : 방한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

< 한국의 여행수지 추이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자료로 HRI 재구성.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간의 인식과 이해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음
- 경제적으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호혜성, 문화적 동질성이 작용하면서 교역, 투자, 관광 등 부문의 상호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중국이 기존의 기술수입국에서 점차 기술추격국을 거쳐 기술선도국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을 구축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과의 힘의 재균형 구도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가 한중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증폭시키는 한계점도 상존하고 있음

<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관계 변화 >

구분		1992년	2016년
외교		선린우호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2008년부터 양국 관계 격상
경제교류	수출	韓→中	전체 수출의 3.5%(6위)
		中→韓	전체 수출의 3.1%(5위, '93년 기준)
	수입	韓→中	전체 수입의 4.6%(5위)
		中→韓	전체 수입의 5.2%(5위, '93년 기준)
	투자	韓→中	전체 해외투자의 10%(3위)
		中→韓	-
	관광	韓→中	전체 방중외국인의 1.1%('95년, 5위)
		中→韓	전체 방한외국인의 2.7%(6위)
		전체 수출의 25.1%(1위)	전체 수출의 4.5%(4위)
		전체 수입의 21.4%(1위)	전체 수입의 10.0%(1위)
		전체 해외투자의 9.4%(2위)	전체 해외투자의 0.9%(10위)
		전체 방중외국인의 3.4%(4위)	전체 방한외국인의 46.8%(1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1) 순위는 각 부문별 전체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함.

주2) 방중 외국인 비중은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을 포함한 수치.

- (시사점) 한중 수교 25년 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간 경제교류가 경색되고 있으나, 국면전환을 위해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중 양국은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對중국 교역 및 투자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최근 들어 관광, 특정 수출품목 등에서 한국의 對중국 경제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경계할 필요성도 있음
 - 양국 간 지속가능한 경제 파트너 관계 유지를 위해 무역분쟁,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등 갈등요소 관리는 물론, 교역과 투자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함
 - 둘째, 적극적인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對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으로 산업표준을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함
 -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더욱이, 산업·기술 교류에 있어서 상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한중 양국이 글로벌 기술표준화를 선도하는 공동의 노력도 필요함
 - 서비스시장 개방 등과 같은 대외개방 전략 전환에 맞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기회 마련도 필요함
 - 셋째, 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중 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간 新냉전적인 대결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요구됨 **HRI**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